



| CONTACT US |

영업팀 공용메일: sales.kr@maxlogis.com / 김민호 부장: mike.kim@maxlogis.com (82-10-2988-6309/070-5096-9367)
 장명수 차장: simon.jang@maxlogis.com (82-10-4437-5175/ 070-5096-9387) / 정근재 대리: jg.jung@maxlogis.com
 (82-10-9120-6938/ 070-5096-9886) / 김현미 대리: sienna.kim@maxlogis.com (82-10-9924-2772/ 070-5096-91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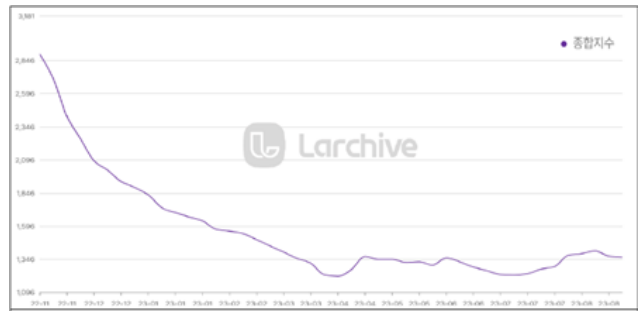
한국

1) 물류 동향

해운동향 :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(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), 35WK

√ 미주 서안, 동안, 호주 상승 / 유럽 하락 / 남미 하락 / 중국 하락

단위: 종합지수(Point), 항로별(\$/FEU)			
항로	35차(WK) (2023-09-04)	34차(WK) (2023-08-28)	전주대비 (증감율)
종합지수	1,362	1,370	▼ 0.6%
원양 (Main-Lane)	미주서안	1,965	▲ 2.2%
	미주동안	3,004	▲ 1.2%
	북유럽	1,405	▼ 3.3%
	지중해	2,176	▼ 3.7%
중장거리 (Non-Main Lane)	중동	1,628	▼ 1.5%
	호주	718	▲ 15.9%
	남미동안	2,663	▼ 7.3%
	남미서안	2,382	▼ 2.0%
	남아공	1,504	▼ 0.6%
	서아프리카	2,358	▼ 0.4%
인트라 아시아 (Intra-Asia)	중국	37	▼ 8.2%
	일본	241	▼ 5.4%
	동남아시아	305	▼ 5.0%



- 13개의 노선 중 3개 노선은 전주대비 상승 ▲, 10개 노선은 전주대비 하락 ▼
- (종합)23년 9월 4일 종합지수는 전주대비 0.6% 하락한 1,362p로 집계됨.
- (미주) 서안은 전주 대비 2.2% 상승한 2,007달러를 기록함. 동안도 3,038달러로 전주대비 1.2%상승함.
- (북유럽/지중해) 북유럽 운임은 전주대비 3.3% 하락하여 1,359달러로 집계됨.

- (남미) 남미동안 2,471달러로 전주대비 7.3% 하락함. 남미서안 2,335달러로 전주대비 2.0% 하락함.
- (근해항로) 중국 운임은 34달러로 전주대비 8.2% 하락함. 일본은 전주대비 5.4% 하락한 228달러를 기록함. 동남아행 운임도 전주대비 5.0% 하락한 290달러를 기록함.

2) 지점소식-1

* [한국, 서울지점]-1

• 아시아(BSA/LUZ/GCR) 및 중일지역 담당

- 주요 아시아 노선 (HAN/HKG/PVG) 콘솔 및 BUP 운영 중
- HKG 면세품 (화장품 외) 및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가능
- OZ PVG 화물기 운항 정시성 확보로 서비스 및 운임 부분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
- OZ 직항 및 주요 OAL (VN/TG/MH/YP/KJ 외)에 기반한 인트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지원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PVG	OZ987	0050 / 0205 +1	D234567	Direct	작업당일 18시	전나연 과장 (070-5096-9366)
HAN	OZ933	2200 / 0020 +1	D134	Direct	작업당일 17시	강준환 사원 (070-5096-9869)
	OZ389/OZ387	2355 / 0250 +1	D234567	Direct	작업당일 17시	
HKG	OZ967	1210 / 1440	D2457	Direct	전일 19시	김정은 사원 (070-5096-9384)
	OZ969	2345 / 0215 +1	D34	Direct	작업당일 18시	
	OZ951	2345 / 0655	D25	Direct	작업당일 18시	

DEST	FLT	ETD/ETA	FRQ	ROUTE	실무자
NRT	OZ102	0900 / 1120	D12345	DIRECT	전나연 과장 (070-5096-9366)
	OZ104	1125 / 1350	D124		
	OZ106	1550 / 1815	D12345		
TPE	OZ711	1000 / 1130	DAILY	DIRECT	곽지연 사원 (070-5096-0004)
	OZ713	1420 / 1550			

메일: asia@maxlogis.com / 네이트온: maxkorea airexp@nate.com / TEL: 02-3144-2289

- YP ICN-SGN 9월 01일부터 10월 28일까지 / YP SGN YP651편 비운항
- 9월 CK ICN-PVG 노선 기재 점검으로 매주 화물기 D3,4,6,7 운항 이외 D1,2,5 비운항
- TG 타이항공 MAWB 발생일자과 출발편 날짜 매칭 확인 : MAWB ISSUING DATE와 항공편 DEPARTURE DATE 매칭이 요구됨
- UL CMB 및 DAC 진행 시, VALUE 필수 기입 - CMB/DAC 세관 요청 상, 8/1일부터 DVC (Declared Value for Carriage)란에 VALUE (USD 기준) 기입 필수

• 유럽 (BSA/LUZ/GCR) 및 서남아시아/중앙아시아 담당

- 유럽 주요 지역(LHR/FRA/VIE/MXP) 콘솔 및 BUP 운영 중
- OZ SKD 이외 주요 OAL(QR/TK/LH)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서비스 진행 중
- LHR/STN 전자담배에 대한 특가 및 안정적 스페이스 지원 가능
- 중앙아시아 (ALA/TAS/IST) 지역에 대한 OZ SKD 프로로션 진행 중

2) 지점소식-2

* [한국, 서울지점]-2

• 유럽 (BSA/LUZ/GCR) 및 서남아시아/중앙아시아 담당(계속)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LHR/STN	OZ793 (FRT)	0230 / 1050 2200 / 0620 +1	D1 D4	DIRECT	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	박주상 과장 (070-5096-9385) 박설희 대리 (070-5096-9389) 손지민 사원 (070-5096-9121)
FRA	OZ793 (FRT)	0230 / 1520 22:00 / 1050 +1	D1 D4	DIRECT	전일 17시	
FRA/VIE	OZ795 (FRT)	2230 / 0610 +1 (VIE) 2230 / 0950 +1 (FRA)	D25	DIRECT	작업당일 17시	
	OZ775 (FRT)	2230 / 0610 +1 (VIE) 2230 / 0950 +1 (FRA)	D36	DIRECT	작업당일 17시	
MXP/VIE	OZ797 (FRT)	0905 / 1645 (VIE) 0905 / 2020 (MXP)	D1	DIRECT	전일 17시	
	OZ789 (FRT)	2230 / 0610 +1 (VIE) 2330 / 0945 +1 (MXP)	D4	DIRECT	작업당일 17시	

DEST	FLT	ETD/ETA	FRQ	ROUTE	실무자
IST	OZ551 (PAX)	1025 / 1610	D1356	DIRECT	박주상 과장 (070-5096-9385) 박설희 대리 (070-5096-9389) 손지민 사원 (070-5096-9121)
ALA	OZ577 (PAX)	1750 / 2140	D12457	DIRECT	
TAS	OZ573 (PAX)	1635 / 2020	D1356	DIRECT	

메일 : europa@maxlogis.com / 네이트온 : max_export1@nate.com / TEL : 02-3144-2289

- ET ELI/ELM 화물 RAC (Restricted Articles Charge) 면제 – 8월 16일부터 하기 디테일 조건에 해당하는 ELI/ELM에 대한 RAC 미적용
: ELI – Lithium ion batteries excepted as per Section II of PI966-967
: ELM – Lithium ion batteries excepted as per Section II of PI969-970
- LO 폴란드 항공 우편번호 형식 안내 – LO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수출 화물 경우 MAWB 및 EDI 전송 시 SHPR / CNEE 의 정확한 우편번호 및 국가 코드 필수 입력 (##-###)
- AY로 이커머스 진행 시, 총기류(장난감 및 연습용 목재 총기), RLI(UN3090,UN3480), 도검(목각 제품), 폭죽 및 일부 액체류는 Embargo 대상임으로 항공사와 사전 확인 절차 필요

• 미주 (BSA/LUZ/GCR) 및 중남미 담당

- 미주 전 지역 콘솔 및 BUP 프로그램을 진행
- OZ 노선에 기반한 ICN-JFK BUP의 안정적인 운영 및 충분한 Allocations 확보 운영
- OZ SKD 이외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/S OAL SVC (UA/DL/5X/M6/PO 등)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운임 과 서비스 지원 가능
- 미주 지역 외 주요 캐나다 및 중남미 (MEX/GRU/BOG/SCL 외) 서비스 진행

2) 지점소식-3

* [한국, 서울지점]-3

- 미주 (BSA/LUZ/GCR) 및 중남미 담당(계속)

BUP 스케줄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LAX	OZ284/OZ286	2330 / 2135	D123456	DIRECT	작업일 17시	안범준 사원 (070-5069-9441)
	OZ2829	0040 / 1950 -1	D7			
SFO	OZ212	2055 / 1600	DAILY	DIRECT		
ORD	OZ242/OZ244/OZ248	2300 / 0005 +1	DAILY	DIRECT		
ATL	OZ483/OZ248	2300 / 0510+1	D357	DIRECT	작업일 17시	장희원 사원 (070-5096-9101)
DFW	OZ242/OZ244	2300 / 0430+1	D1246	DIRECT		
JFK	OZ587	2245 / 0135 +1	D2	DIRECT	작업일 17시	서현주 사원 (070-5096-9342)
	OZ587	1335 / 1825	D5		전일 17시	
	OZ587	2345 / 0250 +1	D7		작업일 17시	

메일: usa@maxlogis.com / 네이트온: maxkorea_airexp@nate.com / TEL: 02-3144-2289

- 시장의 Local 화물 부재 하에 중국 발 SEA&AIR의 지속적인 LAX /ORD 행 이커머스 및 전자담배 물량 문의 증가와 더불어 미주 세관 통관에 불허되는 화물에 대한 경계 강화
- 미국 CBP/캐나다 CBSA 도착 화물 검색 강화 및 도착지 세관 검사 결과 불법 화물로 판단 시, 출발지 포워더에 구상 청구 및 운송 서비스 제한 예정

일본

1) 물류동향

• 수출입 및 주요 품목별 동향

< 일본발 주요 수출품목 >

(단위: 백만\$, 품목단위: MTI 4)

순번	품목명	2022년		2023년 (1-8월)	
		수출금액	증감률	수출금액	증감률
	총계	30,606	1.8	18,977	-9.7
1	집적회로반도체	1,029	-1.5	891	22.5
2	휘발유	1,381	58.5	842	-6.5
3	제트유 및 등유	1,262	4.4	721	-12.4
4	나프타	1,031	-2.3	600	-14.9
5	합성수지	1,012	20.0	556	-23.3
6	의약품	1,146	102.4	532	-31.6
7	화장품	746	-4.7	524	-0.3
8	아연도강판	642	14.0	502	23.9
9	경유	755	-22.0	500	-10.9
10	기타정밀화학원료	1,147	14.5	486	-39.0

- (수출) 집적회로반도체(22.5%), 아연도강판(23.9%)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휘발유(-6.5%), 제트유 및 등유(-12.4%), 나프타(-14.9%), 합성수지(-23.3%)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며 對日 수출증가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-9.7%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

< 일본착 주요 수입품목 >

(단위: 백만\$, 품목단위: MTI 4)

순번	품목명	2022년		2023년 (1-8월)	
		수입금액	증감률	수입금액	증감률
	총계	54,712	0.1	32,275	-13.2
1	집적회로반도체	5,292	67.1	3,287	16.5
2	반도체제조용장비	4,449	-14.9	2,817	-9.5
3	열연강판	1,349	-1.1	1,015	4.3
4	개별소자반도체	1,548	-10.9	962	-5.7
5	고철	1,659	-0.5	877	-29.3
6	기초유분	1,337	-3.4	800	-13.4
7	기타플라스틱제품	1,458	-17.6	760	-28.4
8	기타정밀화학원료	1,102	-26.9	661	-16.0
9	의약품	1,003	106.1	631	-11.6
10	중후판	1,131	41.9	578	-29.9

- (수입) 집적회로반도체(16.5%), 열연강판(4.3%) 등의 항목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, 반도체 제조용장비(-9.5%), 개별소자 반도체(-5.7%) 등의 품목에서는 하락세를 보임.
- 對日 수입증감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-13.2%를 나타내며 감소세를 보임

2) 지점소식

• 일본 휴일안내

- 10/9 체육의 날

중국

1) 물류동향

- 아시아나, 청두 TFU - 인천 공항 항편 개시, 9월부터 주23567, 5편운영 OZ324 A330/320
- 충청지역 전자상 거래화물 증가, APPLE 화물 증가

<충청발 10월 항공스케줄>

YEAR /MONTH	DEPT	항공사	FLT TYPE		DIRECT /T.S	Route		MON	TUE	WED	THU	FRI	SAT	
			(P/C)	기종		출발지	도착지	FLT. NO.	FLT. NO.	FLT. NO.	FLT. NO.	FLT. NO.	FLT. NO.	
202310	CKG	CA439	P	B738	D	CKG	ICN	CA439	CA439		CA439	CA439		
	CKG	KJ2626	C	B737	D	CKG	ICN			KJ2626				
	CTU	KJ212	C	B737	D	CTU	ICN				KJ212	KJ212	KJ212	
	CGO	KJ252	C	B737	D	CGO	ICN		KJ252				KJ252	
	XIY	KJ2726	C	B737	D	XIY	ICN				KJ2726			
	TFU	OZ0324	P	321	D	TFU	ICN		OZ0324	OZ0324		OZ0324		
	XIY	O37003	C	B767	D	XIY	ICN	O37003						
	XIY	KE812	P	333	D	XIY	ICN	KE812		KE812		KE812	KE812	KE812
		KE0328	C	77X						KE0328		KE0328		KE0328
	XIY	CF201	C	B737	D	XIY	ICN		CF201	CF201	CF201	CF201		
	CKG	CI5998	C	747F	T	CKG	TPE			CI5998			CI5998	
	TPE	CI0160	P	330	T	TPE	ICN	CI0160	CI0160	CI0160	CI0160	CI0160	CI0160	CI0160
		CI0162	P	330				CI0162	CI0162	CI0162	CI0162	CI0162	CI0162	
	CKG	BR0678	C	B77X	T	CKG	TPE				BR0678		BR0678	
		BR0160	P	781				BR0160	BR0160	BR0160	BR0160	BR0160	BR0160	BR0160
		BR0170	P	333				BR0170	BR0170	BR0170	BR0170	BR0170	BR0170	
CKG	CX3261	C	74Y	T	CKG	HKG			CX3261					
	CX053	C	74Y					CX053			CX053			
	CX929	P	32Q					CX929		CX929		CX929		

2) 지점소식

- 중국 추석 및 국경절 휴가안내
 - 9/29~9/30 추석휴가
 - 10/1~10/6 국경휴가
 - 10/7~10/8 대체 근무일
 - 10/9~ 정상 출근

1) 물류동향

• 홍콩 물류기업, 상반기 사업 부진



- 홍콩 물류기업인 케리로지스틱스는 올해 상반기 포워딩과 특송 사업이 부진한 탓에 외형과 이익이 모두 후퇴했다고 밝힘.
- 사업 부문별 이익을 보면 종합물류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소폭 늘어난 7억1800만달러(1200억원)로 상승세였으나, 전자상거래·특송(E&E)은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을 냄. 포워딩(IFF)도 82% 추락한 6억2100만달러(약 1100억원)를 기록.
- 케리로지스틱스는 지난 7월, 종합물류와 포워딩 사업에

주력하기 위해,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 특송 사업을 모회사인 SF홀딩스의 자회사에 양도한다고 발표.

- 국제물류주선 부문 이익은 국제 물류의 화물 수요 둔화와 운임 하락으로 대폭 감소. 수입의 80%를 차지하는 태평양항로 취급량은 22% 감소했으나, 시장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은 작으며, 이익률을 유지한 형태로 고객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.
- 해상운송에서는 미국 대상 NVOCC(무선박운송인)로서 2위, 아시아발은 1위를 차지. 계속해서 SF홀딩스와의 시너지를 추구하고, 소량(LCL) 화물 혼재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케리로지스틱스 빅청 사장은 "2023년 1~3월에 바닥을 치고, 그룹 실적은 개선되었고, 4~6월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30% 이상 증가했다"며 "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IL, IFF 모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CAGR(연평균 성장률)을 달성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힘.

2) 지점소식

• 홍콩 휴일안내

- 10/2 국경절 대체휴일
- 10/23 중앙절

싱가폴

1) 물류동향

• 싱가포르 물류경쟁력 세계 1위-'투아스 메가 포트, 창이국제공항' 물류인프라 우수



- 싱가포르물류 경쟁력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남.
-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년도 물류성과 지수(LPI) 보고서에 따르면, 싱가포르는 139개국 중 에서 4.3점으로 2018년 1위였던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.
- 특히 싱가포르는 이번 LPI지수에서 물류인프라와 화물추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. 항만운용사인 PSA(Port of Singapore Authority)와 창이국제공항이 위치한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프라와 연결성을 통해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KOTRA가 분석.
- PSA항구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총 42개국에 160개 이상의 위치와 66개의 터미널을 처리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거점 중 하나. 완공되면 싱가포르 항만은 6,5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시설이 완성됨.
- 창이국제공항은 7년 연속 국제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으며, 전세계 100여개국 380여개 도시에 120여개 항공사가 취항. 아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화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, 싱가포르와 90개 이상의 화물도시를 연결.
- 물류 경쟁력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적극 투자. UPS는 지난 3월 물동량 처리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창이국제공항 허브센터를 25% 확장. 이외에도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난해 구축한 물류허브에 향후 10년간 1억 1,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.

베트남

1) 물류동향

- 9월부터 급작스러운 항공 운임 상승. OZ, KE

- 원인: 중국향 애플물량 및 삼성전자 / LGD / 글로벌스 화물 급격한 증가
대부분 연간 비딩화물로 물류회사에서는 큰 손실 불가피
저가 항공사등도 9월3주부터 운임 동반상승.
10월에도 지속적인 증가 예상

- 8월 급격한 공급저하로 해상 수출 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있었으니, 9월부터 공급증가로 인하여 많이 완화된 상황

태국

1) 물류동향

- 마약단속국, 램차방 세관원과 함께 마약류 집중 검사 실시/불법 수입 방지위한 특별팀 발족

- 태국 유해물질 관리팀과 마약단속국은 램차방 항구 세관 담당자와 함께 램차방항구 내 담당자 배치하여 한국에서 라오스로 운송될 2개 컨테이너 총 26.76톤에 함유된 5개의 물질에 대해 검사 의뢰.
- 산업사업부에서 허가신청 사실관계 조사 결과, 해당업체는 태국법에 따라 5가지 물질에 대해 태국으로 수입전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. 신고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모두 압류 조치 실시.
- 추가로 대내무역과 특별 순찰팀을 편성하여 램차방 發 농산물 및 기타 밀수품 등을 확인하고 운송이 예상되는 경로를 따라 유관기관과 협업 진행중.
- 과거 해외에서 수입한 마늘을 무단으로 운송해 2명이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수사관의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53톤 이상, 490만 바트 이상인 건도 있음.

1) 물류동향-2

• 마약단속국, 램차방 세관원과 함께 마약류 집중 검사 실시/불법 수입 방지위한 특별팀 발족(계속)

- 농산물 불법 운송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특별팀들이 램차 방항구 내 주둔하여 추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.



• 램차방 항구내 유독성 위험물 폭발사고 발생

- 램차방 항구 내 위험물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위험물(유기과산화물:폴리머 및 플라스틱 산업에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인 Class 5.2 UN 3106) 컨테이너 폭발사고로 인해 20명의 인명피해 발생.
- 피해자 20명은 사고 현장 인근 MC물류회사 직원으로 가슴 답답함, 호흡곤란, 눈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 폭발 원인은 컨테이너 야적장의 매우 뜨거운 날씨로 인한 폭발로 예상.
- 다행히 불이 꺼지기까지 1시간 가량 소요된 소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적었으며, 램차방항장은 불에 탄 컨테이너가 통제구역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.누출은 감지되지 않았으며, 해당 지역의 마을 주민 및 항구는 정상적인 업무 및 생활 시작.

대만

1) 물류동향

• 대만 등 동북아 물동량 4개월 연속 증가세...운임은 곤두박질



- 물동량은 4개월 연속 증가세. 영국 컨테이너트레이드스태티스틱스에 따르면 올해 6월 아시아 16개국발 유럽 53개국행(수출항로)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.9% 늘어난 149만 100TEU로 집계됨.
- 중국은 13.3% 늘어난 114만8000TEU를 달성.
-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의 동북아시아도 32.4% 폭증한 15만4000TEU의 물동량을 기록. 반면, 동남아시아는 7% 감소한 18만9000TEU에 그쳤다.
- 1~6월 물동량은 전년 대비 2.3% 늘어난 818만8000TEU로 증가세를 보임. 중국과 동북아시아는 각각 3%, 10.8% 증가한 612만6000TEU, 93만9000TEU를 낸 반면, 동남아시아는 7.1% 감소한 112만 3000TEU를 기록.
- 대형선이 하반기 들어 줄줄이 인도되면서 운임은 곤두박질 침. 중국 국경절 연휴가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수출화물 밀어내기도 대형선 앞에서 효과를 보지 못함.
- 선사 관계자는 "대형선이 줄줄이 인도되면서 수요 증가에도 화물적재율이 60~70%대로 낮아졌다"며 "국경절 공급 조절을 통해 시황 회복에 나서겠다"고 언급.
- 선사들은 9~10월 두 달간 임시결항(블랭크세일링)에 나섬.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 연휴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.

독일

1) 물류동향

• 유가 100달러 가시권'...韓경제 상저하고 갈림길서 돌발악재

- 100달러 근접한 국제유가...전략비축유 재고도 적어,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
- 국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표는 소비자물가
- 단순히 석유류 가격 넘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침
- 다양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원재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데다가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등에도 직·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
- 항공사들도 9월말~10월초에 F/S 인상 예정으로, 물류비용 상승 압박 예상.

• 파나마운하 가뭄 직격탄 ... 운임 40% 급등

- 12일 파나마운하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뭄 호수 수위는 최근 5개년 9월 평균(85.5피트) 대비 6.8% 낮았음
- 이 때문에 파나마운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
- 파나마운하를 대체할 해상 운송 경로는 매우 제한적
- 운송 기일이 한달가량 늘어나기 때문
- 파나마운하 가뭄으로 중국 상하이발 미주 동부행 해운 운임은 지난 8일 기준 1FEU당 2869달러를 기록했음
- 지난 3월 마지막 주(2010달러) 대비 43% 상승한 것

• 탈탄소 규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철도물류...글로벌 선사들 투자 러시

- 최근 유럽에서 철도 운송 점유율과 관심도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KMI는 탄소 배출 규제, 물류비 절감, 정시성 제고 등을 원인으로 꼽았음
- MSC·머스크 나란히 철도물류 강화
- 탈탄소화 추진, 공급망 문제 해결 등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해운·물류기업들은 철도 운송과 연계된 신규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음

2) 지점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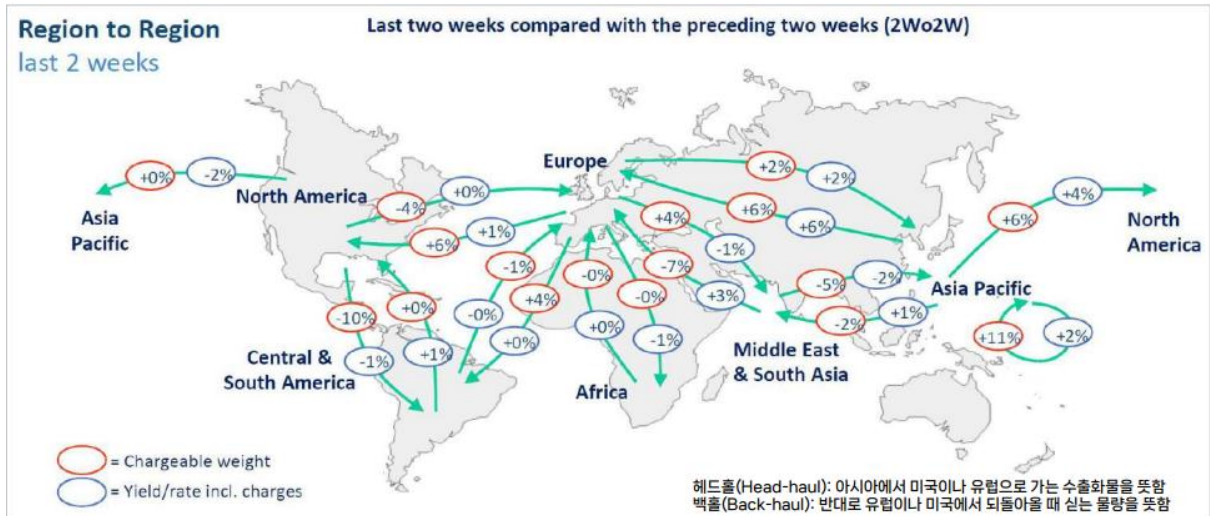
• 독일지점 휴일안내

- 10/03 성체축일

이태리

1) 물류동향

• WorldACD 항공물류시황, 37WK; 항공동향



- 직전 2주간 (23.8.20~23.8.27/ 23.9.03~23.9.10)의 실적 동향을 살펴보면, 항공화물 수요합은 이전 2주간 실적대비 3%가 늘었는데, 공급 스페이스 1%, 운임 수준은 2% 정도로 약간의 변동을 보임.
- 지역 노선별 실적 동향은 가장 성장세를 보인 intra-Asia Pacific (+11%)를 필두로, Asia Pacific 출발을 기준으로 North America행 (+6%) 및 Europe행 (+6%) 실적을 보임.
- 한편, 9월 2주간의 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 전 세계 평균 톤수는 (-)2% 감소했지만, 아태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실적은 (+)10%로 두자리수 증가세를 보였음. 이는 시장 공급 확대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전체 항공화물 공급이 전년동기비 13% 증가한 가운데, 아태지역 공급은 (+)30%가 늘었음.
- 아울러 운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2주간 실적을 비교하면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(-)33% 수준이고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(+)34% 높은 것으로 나타남.